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사업 8부 능선 넘었다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변경’ 대광위 승인 신청

대전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 사업에 청신호를 켰다.

대전시는 지난 해 8월 21일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이후 새로운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변경안’을 지난 달 31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와 사전 협의 뒤 승인 신청했다.

도시철도기본계획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지자체 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철도 사업의 노선, 사업기간, 총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수립 후 대광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대광위 승인 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사업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이 설정된다.

전국 처음으로 상용화되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심의·검토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사업비 7852억 원 보다 339억 원 늘어난 8191억 원으로 조정됐다. 총 연장 366km, 정거장 35곳, 차량기지 1곳 건설을 2025년까지 마무리하고 개통할 예정이다.

기본계획변경(안)에는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때 트램의 안전 운영을 위해 대안으로 검토된 테미고개 지하화가 포함됐다.

트램 2차로에 한해 고심도 터널로 검토된 서대전역교는 호남선 철도 안전운영, 도시재생 등을 위해 일반 자동차 도로를 포함한, 8차로 전체를 지하화하는 내용으로 기본계획에 반영됐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차량

의 급전방식은 무가선 순환운영을 전제로 배터리, 슈퍼캐퍼시터(콘덴서-급속충전), 3제조(비파괴) 전력공급, 무선급전, 수소전지 등 우리 시 도로경사 및 기후여건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12회에 걸친 자문·토론회를 가졌으나 최종 결론을 유보하고, 추후 설계 단계에서 국내의 기술개발 현황 등을 세밀히 검토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대광위와 협의했다.

대전시는 이번 기본계획변경(안)을 기재부에서 시행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제출하였으므로, 빠른 시일 내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

기본계획변경(안)이 대광위에

승인 신청된 만큼, 연초에 전문기관(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협의를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총사업비조정 협의를 마치고 상반기에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기본 및 실시계획 발주 등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예정이다.

대전시 성기문 트램도시공역본부장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사업계획은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을 통해 당위성이 검증된 만큼, 조속히 기본계획 변경(안)이 승인되도록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경자년 새해에는 사업추진이 가시화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부터 16일까지 2020년도 제1차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을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대상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되어 있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가능하다.

외국인근로자 신청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고용센터 앞선 국내 근로자 고용실적, 외국인근로자 고용 인원수, 외국인 전용 보험 준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합격업체를 내달 3일 발표하고, 같은 달 7일부터 12일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0년도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 도입쿼터는 3만130명으로 2019년 1월(9039명), 3월(9039명), 6월(6026명), 9월(6026명)에 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 쿼터는 2019년 2만8880명에서 2020년 3만130명으로 다소 증가했으나, 전체 제조업 쿼터(신규+성실 외국인근로자 등)는 4만700명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송병배기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새해 맞이 본사방문.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대전시교육청 간부 공무원들이 2020년 새해를 맞아 본사를 방문했다. (좌측부터 안복현 행정국장, 허진욱 기획국장, 김성구 대전투데이 사장, 설동호 교육감, 전성길 홍보관)



박용갑 청장, 대전투데이 본사방문

“도시 재개발·재건축으로 원도심 활성화”

박용갑 중구청장은 “다양한 사업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노력하겠다”

박용갑 청장은 3일 <대전투데이>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도시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많지만 조합이 재구성됐기 때문에 사업이 잘 진행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청 뒷길에 독립운동 홍보관을 만들겠다”며 “대전지역에는 37명의 독립운동가가 있다. 독립운동가의 자료 및 포토존을 만들어 지나가는 청소년들에

게 민족의 고난과 애환을 가르쳐 주고 나라사랑 애국심을 알게 해 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구지역에는 일제의 흔적들이 많이 남았다”며 “웅장한 충남도청부지는 우리나라를 억압했던 곳으로 도청 뒷길은 독립운동 홍보관으로 맨주먹으로 싸웠던 독립운동가로 두 장소가 대비되는 곳이다. 후손들이 잊지 말자는 뜻에서 꼭 하고 싶다”고 피력했다.

김태선기자

정차없이 달리는 ‘슈퍼-BRT’ 선정

세종·인천계양·부천대장·경남 창원·인천·경기성남 등 5곳

세종, 인천계양·부천대장과 경남 창원, 인천, 경기 성남 등 5곳이 기존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업그레이드한 ‘S(Super)-BRT’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S-BRT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5곳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BRT는 국내에 2004년부터 도시철도 대비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 수단으로 서울, 경기, 세종 등 총 24개소에 도입되었으나, 대부분 중앙버스전용차로 수준으로 건설·운영됨에 따라 당초 도입 시 기대했던 서비스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지하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S-BRT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이번에 대광위에서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S-BRT를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한 지침서인 S-BRT 표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선정하기로 한 것이다.

표준가이드라인에 따르면, S-

BRT는 전용 도로, 첨단 정류장 등 전용 시설과 운영 시스템을 활용하여 빠른 속도와 편리성으로 지하철 수준의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급형 BRT로, 급행기준 평균 운행 속도 35km/h(일반 25km/h), 출·도착 일정 2분 이내, 이용객 편의성 등을 목표 서비스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전용주행로, 정류장 시설, 차량·운영 시스템 등 총 5개 분야, 총 16개 세부요소별 권장 및 필수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표준가이드라인에 따라 S-BRT가 도입되면 일반도로와 분리된 전용도로와 입체화된 교차로(또는 우선신호), 추월차선을 활용하여, 도로 지·정체와 상관없이 지하철과 같이 정류장에서만 정차할 수 있어 기존 BRT에 비해 속도와 정시성이 대폭 향상된다.

또한 승객들이 직접 이용하는 정류장도 개선하여, 눈비 미세먼지 등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되는 폐쇄형 또는 반개방형으로 설치하고 수평승하차도 가능토록 하여

승하차 시간을 단축하고 교통약자 편의를 증진할 예정이다.

운행 차량도 수소·전기버스 등 친환경 차량을 우선 운행하고,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에는 굽힐버스 등 대용량 차량을 투입하여 이용자들이 만차로 인한 추가 대기 없이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하철 등 주요 연계 교통수단까지의 환승거리를 최소화하고 운행스케줄을 연계한 급행버스 서비스를 도입하여 환승편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정류장 내 사전요금 지불시스템을 도입하고, 차량 및 정류장에 냉·난방 시설, wifi, 위치정보 표시서비스 등 이용객 편의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세종 BRT(반곡동~세종터미널~한별리, L=22.9km)는 정류장 침탄화(냉·난방시설, wifi 등), 전기·굽힐버스, 우선신호시스템, 사전요금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하여, 신규 노선 도입에 앞서 S-BRT 실제 모습을 조기에 엿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태선기자

daejeontoday.com



저희 원탑스튜디오는
제품 및 기업 홍보영상, CF 방송광고 등
다년간의 수많은 영상제작을 통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대에 맞는 절고 창의적인 감각을 더해
광고주가 원하는 최상의 결과물을 보여드립니다.

전광판 및 스크린 영상광고 | CF 방송광고 제작 | 기업 및 제품 홍보영상 제작

문의 전화 | **070-7434-8508**

HDC현대산업개발, 당진시 첫 아이파크 브랜드

‘당진 아이파크’ 견본주택 개관



당진시 최초 ‘아이파크’ 브랜드 공급으로 관심 집중 전세대 중소형 구성·남향 위주 4베이 판상형 설계

- 계성초 비롯한 당진 명문학군 도보권 위치
- 생활인프라 편리한 이용 당진 최종심 입지
- 오는 6일 특별공급·7일 1순위 청약 접수

1월 3일(금) HDC현대산업개발은 충청남도 당진시 읍내동 37-3번지 일원에 공급하는 ‘당진 아이파크’의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당진 아이파크’는 입지여건이 뛰어나 분양 전부터 지역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단지는 충남 당진시 도심권에서도 정중앙에 위치해, 학군, 상업, 교통 등 다양한 생활인프라 이용이 수월하다. 여기에 ‘당진 아이파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당진시에서 첫 선을 보이는 ‘아이파크’ 브랜드인

만큼 상품성까지 뛰어나단 평이다.

■당진의 중심에 위치해 (대다) 갖춘 퍼펙트 생활권 아파트

‘당진 아이파크’는 당진시 내에서도 우수한 학업성취도를 자랑하며 선호도가 높은 계성초를 비롯해 원당중, 호서중, 호서고가 도보권에 위치해 있다. 단지 인근으로는 롯데마트와 당진고속터미널 등도 인접해 있고, 무수당로와 당진중앙2로를

통해 당진시 주요 상업시설이 위치하는 등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당진경찰서, 당진지방법원, 당진교육지청, 당진 문예의 전당 등 주요 공공기관 및 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또, 단지 배후에는 3만3,859㎡ 규모의 계림공원이 위치해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당진시는 최근 2020년 시책구상보고를 통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인 계림공원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320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시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진 아이파크’가 입주할 하게 되면, 단지에서 대형공원이 연결된 숲세권 아파트로 자리잡게 된다.

직주근접성도 뛰어나다. 현대제철을 비롯한 당진1철강단지와 송산일반산업단지, 석문국가산업단지, 부곡산업단지, 고대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산업단지까지 차량을 통해 약 30분 내에 모두가 동이 가능하다.

■전세대 남향 위주 배치에 ‘4베이+판상형’ 특화설계 적용

HDC현대산업개발이 당진시에 첫 선을 보이는 ‘당진 아이파크’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6개

동 전용 59~84㎡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59㎡ 186세대 △74㎡ 40세대 △84㎡A 194세대 △84㎡B 6세대로 전 주택형이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면적으로 공급된다. 또, 최상층은 복층형으로 구성되는 특화설계도 선보일 예정으로 수요자들의 높은 호응이 예상된다.

특히, ‘당진 아이파크’는 중소형임에도 전세대가 4베어로 지어진다. 전용 59㎡타입은 4베이 판상형으로, 안방에는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주방 팬트리까지 갖춰져 공간효율성이 뛰어나다. 전용 74㎡타입은 코너형 판상형 구조다. 전용 74㎡는 4베어로 방3개, 욕실2개로 이뤄진다. 주방 팬트리와 안방드레스룸, 파우더룸 등이 갖춰져 있다.

전용 84㎡A타입도 4베이 판상형으로 방4개, 욕실 2개로 구성된다. 입주민 취향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알파룸과 넓은 드레스룸 등이 있어, 대형 면적에 버금가는 수납공간과 공간감을 느낄 수 있다.

전용 84㎡B타입은 복층형 구조로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1층은 4베이에 방3개, 욕실 2개로 구성된다. 상층부는 거실과 방1개, 욕실1개, 테라스로 이뤄져 있어 독립가구 이용이 가능하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되어 있고, 단지 중앙에 공원이 위치해 동간 거리도 넓어 일조량이 풍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커뮤니티 시설에는 입주민 지인들이 방문했을 때 쉴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와 피트니스센터, 어린이집, 독서실, 경로당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HDC현대산업개발 분양관계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당진시에서 첫 런칭하는 ‘아이파크’ 브랜드인만큼 특화설계를 비롯한 높은 상품성 갖춘 아파트를 선보일 계획이다”며 “여기에 당진시 최종심에 위치해 입지여건이 뛰어나고 학군을 비롯해 교통, 상업, 문화 등 생활인프라 이용까지 쉬운 만큼 지역 내 수요자들의 높은 청약열기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당진 아이파크’의 견본주택은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중앙2로 290구 SK호남주유소 부지에 위치하고 있다. 청약일정은 6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일(화) 1순위 청약, 8일(수) 2순위 청약을 진행하며, 정당계약은 28일(화)~30일(목) 3일 간 이뤄진다.

분양문의: 041-360-7900

당진=최근수 기자

● 특 정 ●

시장군수 신년인사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31일 오전 8시 20분 영상회의실에서 열리는 시장군수 신년인사...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



황선봉 예산군수는 31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에 참석...

2020 홍성문화원 신년교례회



김석환 홍성군수는 31일 오후 4시 리전시아에서 열리는 2020 홍성문화원 신년교례회에 참석...

세종문화원 경자년 신년교례회



서극택 세종시의회 의장은 31일 오전 10시 30분 세종시민회관에서 열리는 세종문화원 경자년 신년교례회에 참석...

김부성 충남도농기원장 취임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2일 기술원 대강당에서 김부성 신임 도 농업기술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서천 출신인 김 신임 원장은 서울대 농업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도민 행복·충남 미래 위해 힘 모으자”

충남도, 2020년 시무식 개최...도정 비전 공유하고 새해 힘찬 새 출발 다짐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직원들과 함께 2020년 시무식을 갖고, “8대 핵심과제를 심화·발전시키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2020년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새해 도의 비전과 희망을 공유하고, 힘찬 새 출발을 다짐하기 위...



예산군 2020년 시무식 개최

국내최장예당호 출렁다리 새해다짐 기념행사는길

예산군은 2일 2020년 시무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이번 시무식은 2020년 새해의 힘찬 출발을 다짐하기 위해 열렸으며 ‘티나’팀의 치어리딩과 김태효 씨의 민요, 부부성악가인 이현...

2020년에는 산업형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새해다짐 기념행사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황선봉 군수는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2019년에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2020년에도 1100년 역사를 바탕으로 더욱 힘차게 발전하는 예산군을 만들어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성구 기자

홍성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올해 첫 삽

15만㎡ 규모 상업·주거용지 등 개발·역세권서비스 기능향상 기대는 2022년까지 완공하려고 최선을 다해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개발사업의 중심지에 위치한 홍성역은 ‘2018철도통계연보’에 의하면 2017년 홍성역을 이용한 여객이 연간 약 120만 명이며, 도내 일관철도 중에서는 연간, 노선역에 이어 세 번째로 여객이 많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서해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등에 의하면 서해선과 장항선이 복선전철로 개통 시 일 평균 1만7천 명이 이를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김정환 기자

홍성군 올해 다양한 청년 지원시책 추진

홍성군이 청년 지원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며 청년층 유망의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에 30억 원 규모의 홍성복합문화창업공간 및 우수창업가 선정됐다. 광천 대평리마을의 농형소유 창고를 무상 임대해 사용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역특화 6차산업 글로벌 청년창업가들을 인큐베이팅 및 육성하고, 의식주와 오감을 만족하는 체류가능 가족형 문화공간을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우수워킹뷰, 우수놀이터, 잇슈하우스 등 총 세 가지의 컨셉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또한, 관내 커피오감을 거점으로 한 청년 일자리 카페사업도 순조롭게 청년 취업의 전조기지로 자리매김했다. 군은 취·창업특강 및 컨설팅 등을 연중 제공하고 있다. 8개 청년창업기업이 군의 지원을 바탕으로 네트워킹을 조직해 청년 20명이 학습과 일자리 비전을 공유하며 활발한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는 청년 네트워킹 구축 사업과 10개의 사...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본격 운영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센터장 이홍준)가 홈페이지를 2일부터 본격 운영해 다양한 마을교육과 체험프로그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센터 홈페이지는 세종시 아동·청소년들이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는 체험과 마을방과후 교육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도 별도 로그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 주요 기능은 마을교육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정보, 마을교육지원 현황, 참여마당 등으로 구성됐다. 홈페이지에서는 최근 소식과 알림사항, 센터홍보영상, 리플릿 등 다양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마을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은 추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홈페이지에 탑재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sejong.go.kr/happyedu>이며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교육지원과(044-300-3943)로 문의하면 된다. 이홍준 센터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세종시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양한 마을교육과 체험활동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마을과 학교의 연계로 통해 수요자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발굴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선 기자

세종시 ‘2020 농업분야 시범사업’ 실시

세종시는 ‘2020년 농업분야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신기술을 활용해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 가락 2일 밝혔다. ‘2020년 농업분야 시범사업’은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소득작물 ▲식량작물 ▲생태 ▲축산 ▲도시농업 ▲생활자원 ▲인적개발 분야 등 37개 사업으로 진행된다. 작목별로는 ▲생산성 향상 ▲신기술보급 ▲기후변화대응 ▲농촌융복합산업 등을 중심으로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잡자는...

Advertisement for agricultural demonstration projects with phone number (042)538-3030 and website www.daejeontoday.com

주거약자위한 ‘사랑의 집짓기’ 추진

세종시 “다양한 사업 통해 취약계층 주거복지 실현”



세종시는 노인과 장애인 등 주거약자를 위한 ‘세종형 사랑의 집짓기’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사랑의 집짓기 사업은 우리시가 시행하고, LH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 복권기금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 3월 LH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2일 밝혔다. 세종형 사랑의 집짓기 사업은 전 시에 읍내리 189-3번지 일원에 사업비 약 23억원(복권기금)을 투입하여 부지 1,346㎡에 연면적 886㎡ 규모로 모듈러 다가구주택 16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주택 규모는 33㎡로 방과 주방 겸 거실, 욕실 등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사랑의 집짓기 사업은 다음 달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사업진행에 맞춰 입주자를 모집(2월)하고 관리업체를 선정(4월)하여 7월 입주할 예정이다. 사랑의 집짓기사업은 모듈러시스템으로 진행되며, 모듈러(Modular) 주택은 자재와 부품 70-80% 가량을 공장에서 미리 생산하여 현장에서 설치·조립하는 방식이다. 세종시는 그동안 적합한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공유지를 조사하여, 사업에 적합한 부지 2개소(시유지 1, 교육청 부지 1곳)를 찾아냈으며, 접근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전의면 소재 교육청 소유의 부지를 협의, 매입하고 주택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사랑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도 제정(‘18.8.20)했다. 사랑의 집짓기 사업은 주거 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료를 주변 지역의 30~40% 수준으로 책정할 예정이며, 자격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장기 거주나 영구적인 거주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세종형 사랑의 집짓기 사업은 노인과 장애인 등 주거약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누리도록,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홍성군, 희망2020 이웃사랑 성금 모금 목표액 초과 달성

홍성군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진행 중인 ‘희망 2020 이웃사랑 성금 모금행사’의 사랑의 온도답이 100%를 초과 달성했다. ‘희망 2020 이웃사랑 성금 모금행사’는 각 기관·단체, 기업체, 출향인,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군은 오는 1월 31일까지 성금 모금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군정 복지정책과, 각 읍·면사무소에 성금 접수창구를 운영함은 물론 지로 및 사랑의 계좌, 순회모금행사, 거리캠페인, 물품모금 등 다양한 납부 방식을 통한 군민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현재 1734건수 5억 5493만1000원을 모금하여 목표액(약 6440만 원) 대비 119.49%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 희망 2020 성금모금 목표액을 초과달...



성 중이다. 특히 지난 12월 11일 실시된 순회모금에서는 715만8천 원의 성금을 모금하여 목표액 달성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각지에서 쌀, 떡국떡, 새우젓, 사과즙 등 현물기부도 잇따르고 있다. 한편, 홍성군은 지난해 불우이웃을 위해 공동모금회로부터 생계비, 난방비, 의료비, 명절지원금 등으로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기관 등에 지급하는 등 군민의 행복을 위한 복지행정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아산시 새해 해맞이 한마당 열려

시민들과 함께 건강과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 '느리게 가는 우체통' 설치·이벤트 진행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지난 1일, 아산 안보공원에서 오세현 아산시장을 비롯 한 기관·단체장 및 시민 500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새해 해맞이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시민들과 함께 건강과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북·섹소폰식전공연에 이어 오세현 아산시장 및 김영애 아산시회의장, 국회의원의 새해인사, 축하 시무며 자르기, 해오름 타고, 시립합창단 축하공연, 단체삼창 등의 순서로 열렸다.

이외에도 한달 후 기재된 주소로 발송되는 '느리게 가는 우체통'을 설치해 새해 소원과 사연을 전하는 이벤트도 진행돼 이목을 끌었다.

해맞이 행사 후 오세현 아산시장을 비롯한 행사 참석자는 남산팔각정으로 이동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새해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이어 남산 종별탑 참배도 진행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작년 대외적 변수로 인해 지역 경제가 좋지 않았지만, 올해는 삼성 투자와 더불어 도시기반을 더욱 공고히 구축하려 한다"며, "50만 자족도시를 향해가는 아산의 성장 과실이 시민들께 골고루 나눠지도록 하는 것이 더 큰 아산, 행복한 시민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지혜와 부를 상징하는 쥐띠의 해, 34만 아산시민 모두에게 지혜와 풍요와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아산=리량주기자

행정자료 활용 청년 통계 보고서 발간

당진시, 6개 부문 122개 지표 수록

당진시가 2월 청년 삶의 질 향상과 청년정책 수립 활용을 위해 충청지방통계청과 손잡고 행정자료를 활용한 청년 통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통계청 승인을 받은 청년 통계 보고서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 15세~39세 청년인구와 가구, 경제, 일자리, 고용, 복지·연금, 건강 등에 대한 행정자료를 연계·분석해 6개 부문 122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당진시 전체 인구 16만 1999명 중 청년은 4만 9806명으로 전체 인구의 30.4% 비율을 보였으며, 청년인구 중 남성은 2만 7781(56.3%)명으로 여성 2만 1525명(43.7%)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8년 청년 경제활동 인구는 하반기에 상승했으며, 연령별 청년 경제활동 참가율은 ▲25~29세 78.8% ▲30~34세 78.2% ▲35~39세 77.3%로 25~29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시는 이번 청년 통계 보고서를 적



극 활용해 청년 취업박람회와 중소기업 채용형 인턴 사업 등 당진형 일자리와 고용서비스를 제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당진=최근수기자



서산시 2020년 농업기술 보급 시범사업 접수

오는 6일부터 28일까지 3개 분야 49종 시범사업 신청·접수



롯데백 대전점, 신학기 가방은 'MLB 키즈' 롯데백화점 대전점 아동 스트리트 캐주얼 브랜드 'MLB 키즈'가 2020년 쥐띠 해를 맞아 '디즈니(Disney) 콜라보레이션' 신학기 가방을 선보이고 있다. MLB 키즈의 시그니처 로고와 귀여운 미키 캐릭터로 포인트를 주는 백팩과 서브백 세트, 가볍고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슬링백 등 다채로운 신학기 아이템을 판매한다.



서산시가 1월 6일부터 28일까지 '2020년 농업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는다.

은 총 14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업인 기공사업장 품질향상 시범사업 등 농업 지원분야 17개 사업, 비 대체 하계-동계 사료작물 일괄재배 시범 사업 등 축산분야 3개 사업, 비 안정육묘 자동이송 단지 조성 시범사업 등 기술보급분야 29개 사업으로 총 49종의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신청자격은 주민등록상 주소 및 사업 대상지가 서산시에 있는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각 시범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고 시범사업을 성실히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접수는 농업기술센터 해당 과에서 가능하며, 시는 28일까지 접수를 받아 현지 심사를 거쳐 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2020년 농업기술 보급 시범사업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여건 속에서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심 있는 영농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온양농협 목표를 위해 일치단결 다짐

공명지조(共命之鳥) 동시입수(冬時入水) 결의

온양농협(조합장 김준석)은 지난 1일, 춘장대 바닷가에서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이해 『2020년 온양농협 공명지조(共命之鳥) 정신 함양을 위한 동시입수(冬時入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온양농협은 지난 1일, 온양농협을 대표하는 임직원 26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농협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고자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정신수양과 체력을 가다듬는 행사를 개최했다.

공명지조(共命之鳥)란 자기만 살려고 하면 공멸한다는 뜻으로 평소 김준석 조합장이 직원들에게 협동조합 정신을 강조하며 외쳤던 말로써 전국 대학 교수들이 2019년을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선정해 더욱 화제가 됐다.

이날 김준석 조합장은 "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함께 도와가며 목표를 이루어야 한다"며, "우리의 목표는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과 고객만족으로 새해를 맞이해 영하의 날씨가지만 새로운 정신으로 뜻을 이루자는 취지 아래 공명지조(共命之鳥) 동시입수(冬時入水) 결의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뜻을 같이하는 상임이사, 본부장, 상무, 각지사무소장과 희망하는 직원들이 26명이 동참해 행사를 안전하게 마무리했다. 행사에 참여한 26여명의 임직원은 "올해 들어 가장 추운 영하의 날씨에 바닷물에 들어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새해 첫날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지고자 바닷물에 뛰어드는 용기를 내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 좋은 추억과 함께 정신무장이 된 것 같아 뜻 깊은 행사였다"며,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

아산=리량주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원대로 26-28 대동빌딩 7층

고유가 시대
이제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

동정

신년하례회



오세현 아산시장은 3일 오전 11시 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신년하례회에 참석.

여성계 신년회



김홍장 당진시장은 3일 오전 11시 당진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열리는 당진시 여성계 신년회에 참석.

신년교례회



가세로 태안군수는 3일 오전 11시 군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2020년 신년교례회'에 참석.

이산시 신창면 햇빛이행사 열려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신창읍내자율방범대(대장 양건승) 주관으로 지난 1일, 신창면의 발전과 안녕을 기원하는 햇빛이행사가 신창면 학생산 정사에서 5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해 뜨는 시간에 맞춰 신창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풍물놀이 공연과 신년 덕담 인사, 새해 소망을 적는 풍선 날리기 등으로 행사가 진행됐으며 떡국, 군고구마, 가래떡 등을 준비해 행사장을 찾은 주민들에게 나누어주며 새해 아침을 함께 기다렸다.

이 날 행사를 준비한 양건승 대장은 "올해 13번째를 맞이한 햇빛이행사를 위해 대원들 모두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했다"며, "지난해 힘들고 아쉬웠던 점은 모두 잊고 2020년 새해에는 희망과 안녕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임황선 면장은 "신창면 주민들과 뜻깊은 자리를 함께해 영광이다"면서 "경자년 새해에는 화합과 행복, 그리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산=리량주기자

청양군 설 명절 열차승차권 예매

청양군(군수 김동관)이 설 명절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7일과 8일 민원봉사실에서 열차 승차권 예매를 실시한다.

7일에는 경부선, 경전선, 동해선, 충북선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고 8일(수)에는 장항선, 호남선, 전라선, 중앙선, 태백선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다.

민원봉사실에서는 오전 8시부터 11시 까지 3시간 동안 예매 가능하고, 레츠코 레일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예매 가능하다.

예매 대상은 1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운행하는 무궁화호 이상(관광전용 열차 포함) 지정 좌석에 한하며, 1인당 최대 12매(1회당 6매) 이내의 모든 열차 승차권이다.

잔여석(역·홈페이지·코레일톡 등)이 있을 경우 1월 8일 오후 3시부터 판매하며 '코레일톡'이나 철도고객센터(ARS포함), 자동발매기에서 구매 가능하다.

명절 승차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청양군 민원봉사실(041-940-2146)이나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88-7788)에 연락해 도움을 받으시면 된다.

청양=정상범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1층

시무식 갖고 2020년 업무 본격 돌입

당진시, "민선7기 청사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것"



당진시가 2일 오전 9시 시청 대강당에서 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갖고 2020년 업무에 본격 돌입했다. 이날 시무식에 참석한 김홍장 시장은 새해 인사를 통해 2020년 추

극화라는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 호우역주의의 파고를 넘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서가기 위한 협찬 도약을 이어갈 것이라며 "많은 도전이 필요하고 결코 만만치 않은 길이지만 당진시민의 열정과 의지 앞에 이루지 못할 일, 가지 못할 곳이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시장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사람 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며 "시민중심의 시정 실현과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과 자주 만나 가감 없이 의견을 듣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히며 소통행보를 다짐했다.

우리/동/네



청양구기자의 용·복합 무한변신

다양한제품으로 설명절 선물시장 지각변동 예고

농업인 소득증출과 국민 건강을 위한청양구기자의 용·복합적 변신이 다양한 제품 출시로 나타나면서 설 명절 선물시장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술이나 환과, 차 등의 원료로 사용되면서 국민 건강에 도움을 준 청양구기자는 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한종권)의 농식품 전문가 과정을 통해 무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들 제품과 생산업체가 오는 12월까지 과자·빵·음료·떡류 등 품목의 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해법) 의무 적용에 따라 해당 가공시설과 위생장비를 갖추도록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귀농귀촌인 증가와 농산물 가공창업 희망자가 증가에 따라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색상품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생산뿐 아니라 판매계절을 위해 각종 박람회 참여와 포장 디자인 고급화, SNS를 활용한 스마트스토어 구축 등 홍보마케팅 활동에도 적극 뛰어들 계획이다.

한종권 소장은 "청양은 한국 구기자의 분산이고 청양에서 생산되는 각종 제품은 최고의 품질과 효능을 인정받고 있다"면서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가공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농업인 소득증출과 국민 건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방 치료로 난임 극복에 도움됐다"

당진시, 난임 한방치료 지원... 7명 임신 성공

당진시 보건소는 결혼 후 임신이 되지 않는 난임 부부에게 2018년 3월부터 한방 치료비를 지원해 2019년까지 모두 7명이 임신에 성공했다고 2일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임신이 되지 않고 인공, 체외 시술 등 난임 치료에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소득과 상관없이 한방 치료비를 지원해 왔다.

지원 대상은 만44세 이하 여성으로, 배란장애나 원인불명 등으로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1년 간 1회, 1인 최대 150만원 한도로 지원해 개인별 건강상태에 따라 최대 3개월의 치료기간 동안 침, 뜸, 한약 등 한방치료를 받도록 했다.

이렇게 보건소로부터 난임 치료를 위해 한방 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2019년 12월 기준 모두 43명으로, 이중 7명이 임신에 성공해 16.3%의 성공률을 보였다.

당진=최근수기자

태안군 경자년 새로운 발전 도약의 해

가세로 군수, 2일 시무식서 새해 군정운영 방침 밝혀



가세로 태안군수가 신년사를 통해 "2020년은 그동안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더 큰 결실을 맺는 '도약의 한 해'로 만들도록 군정 운영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군수는 2일 군청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지난 한 해 더 큰 결실을 맺는 '도약의 한 해'로 만들도록 군정 운영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개토 대사업'이 조기 가시화되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태안 발전 도약의 해로 삼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더 잘사는 새태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가세로 군수는 ▲미래를 설계하는 신해양도시 태안 성장 기반 구축 ▲다채로운 즐거움과 테마가 있는 문화·관광 도시 조성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 사회 구현 및 안전 도시 조성 ▲쾌적한 주거환경과 행복한 교육 환경 조성 ▲군민과 기업 모두가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실현 ▲누구나 살고 싶고 꿈이 영글어 가는 농·어촌 조성 ▲군민과 소통하는 눈높이 군정 등을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결의대회 열려

청양군,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서약

청양군 공직자들은 지난 2일 대회의실에서 반부패·청렴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투명한 사회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서약을 했다. 특히 각 부서장을 주축으로 모든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이수제와 상시 학습, 자율적

로 했다. 청양군 관계자는 "부패에 대한 엄정 대응과 적극적인 청렴시책 추진으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실현하면서 군민의 전폭적 신뢰를 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정상범기자

태안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연 최대 70만원·3년간 지원... 1월 23일까지 신청

태안군이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 사업으로 주택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혼인 신고 한 신혼부부로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자이다. 자격요건으로는 △혼인신고일 2015. 1. 1.~2019. 12. 31.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부부 모두 만 39세 이하 △신칭일 기준 관내 거주자이며, 기초생계·의료·주거

대 70만원을 연 1회 지급하고, 최장 3년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이달 2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관계자는 "다양한 주거지원 사업으로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 '살고 싶은 태안, 머물고 싶은 태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신축민원처리과(041-670-2192)로 문의하면 된다. 태안=김정환기자

청양 알프스마을 '칠갑산얼음분수축제' 개장식

2월 16일까지 전국 최고의 겨울왕국 추억 선사

청양군 정산면 천장리 알프스마을(대표 황준환)은 지난 1일 제12회 칠갑산얼음분수축제 개장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얼음분수축제는 2월 16일까지 계속될 예정으로 주간 오전 9시~오후 5시, 야간 오후 6시~10시까지 개장된다.

알프스마을을 방문하면 영화 겨울왕국의 환상적인 얼음 풍경과 러브스토리의 눈 풍경을 아름답게 즐길 수 있다.

이번 축제에서는 70여 점의 높고 웅장한 얼음분수, 눈 조각과 얼음 조각, 대형 눈 동굴, 야간 별빛 터널, 대형 트리, 포토존 등 최고의 볼거리를 제공한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눈썰매 7종, 얼음썰매 2종, 봅슬레이 2종 등 튜브 타기와 소가 끄는 썰매 또한 방문객을 기다린다.



다.

그뿐 아니다. 빙어낚시와 장작불에 구워 먹는 알밤과 고구마, 사골떡국, 사골우거지 국밥, 빙어튀김, 사골국수 등 토속적이고 추

억 어린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하다.

특히 어둠이 내려앉은 뒤 품속의 한 장면처럼 은하수를 펼쳐놓는 별빛 터널은 100만 개의 화려한 유기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청양=정성범기자



대전시, 2020년 경자년 새해 합찬 출발 대전시는 2일 오후 5시 대강당에서 시무식을 갖고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합찬해 시작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시무식에서 지방분권의 주체로서 새로운 대전을 만들어가기 위한 공식 사회의 혁신적인 변화를 주문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2일 교육청 주요 간부들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 순국선열을 기리며 참배했다.



충남교육청, 충남보훈공원 총훈탑 참배 충남교육청은 2일 김지철 교육감, 신익현 부교육감이 도교육청 국장, 과장들과 함께 충남보훈공원 총훈탑을 참배한 후 2020년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조폐공사 '산업재해 ZERO 선포식' 개최 한국조폐공사는 2일 대전 본사에서 시무식과 함께 '산업재해 제로(ZERO)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은 근로자 대표의 산업재해 제로 결의문 낭독과 무재해(旗) 게양식으로 이뤄졌다. 임직원들이 조용한 시장 앞에서 '산업재해 제로'를 결의하고 있다.



충남대, 2020년 시무식 개최 충남대학교가 2020년 시무식을 개최하고 희망찬 새해를 시작했다. 충남대는 오덕성 총장과 학무위원 및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2일 오전 10시,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미홀에서 시무식을 개최했다.



대전보훈청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금지 및 갑질근절 실천 결의대회' 실시 대전지방보훈청(청장 이남일)은 2일 2020년 새해를 맞아 본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금지 및 갑질근절 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충남도, 전국에서 가장 청렴한 지방정부 실현 속도

간부 공무원 24명 참여 '2020년 간부공무원 청렴서약식'



충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청렴한 지방정부 실현을 위해 목표의식을 공유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속도를 낸다.

도는 2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양승조 지사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 24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0년 간부공무원 청렴서약식'을 개최했다. 2020년 시무식과 연계해 진행한 이번 청렴서약식은 간부공무원의 청렴 리더십을 높이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부공무원 등이 서명한 서약서의 주요 내용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를 예방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솔선수범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또한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며, 업무수

행과정에서 부당한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직위를 이용한 지위·권한 남용, 이권개입, 앞선·정탁 등 청렴성에 의심되는 행동을 금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끝으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조직 구성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양승조 지사는 "2020년에는 도민이 직접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전국에서 가장 청렴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경주하겠다"며 "이를 위해 도민과 함께 적극적인 민관협력 청렴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윤찬수 아산부시장, 취임식 갖고 업무 돌입

윤찬수 아산시 부시장의 취임식 행사 500여 공직자 참석해 개최



윤찬수(57세) 전 충남도 투자입지과장이 아산시 부시장으로 취임했다. 아산시는 2일,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새로 취임한 윤찬수 아산시 부시장의 취임식 행사를 500여 공

지가 참석해 개최했다.

윤찬수 신임 부시장은 취임사에서 "온천과 역사 문화가 살아 숨 쉬면서 국가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활력도시 아산에서 일하게 된 것에 영광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동료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과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자치 도시, 자족도시, 행복도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정을 가지겠다"며, "4가지 사항에 대해 당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고객중심의 행정환경 추진이다. 윤 부시장은 "시민들은 세심한 행정을 요구하고 있기에 시민의 관점에 맞춘 생활행정, 현장행정 등 시민중심 행정이 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적극행정의 보호와 우대이다. "50만 자족도시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시민행복지수를 높여야 하며 기업하기 좋은 아산 만들기는 매우 중요하고 시대적 소명으로 소통과 변화 그리고 열정을 가지자"고 말했다. 이어 세 번째로 청렴을 언급하며 "투명, 공정하고 원칙과 상식에 맞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좋은 일터, 좋은 직장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 시정발전과 행정혁신, 조직을 이끄는 데 좋은 의견을 건의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믿고 함께 가자, 지혜와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직원대표의 꽃다발 전달, 취임사 후 시민홀 입구에서 직원들과 악수하며 취임인사를 나눈 후 시 의회를 방문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쳤다.

아산=리량주기자

국립 한밭대, 현충원 참배로 새해 업무 시작

최병욱 총장 "지역사회 기여 뿐만 아니라 사회를 이해하는 감성 더하자"



한밭대학교(총장 최병욱)는 2일 최병욱 총장과 보직교수, 학생자치기구 임원, 직원 대표 등이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서 분향, 참배하며 한해 업무를 시작했다.

현충원 참배에 이어 대학 내 이트홀에서 2020년 시무식 행사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는 2019년 정부포상과 모범직원에 대한 시상식이 이뤄졌다.

정부포상은 사무국 총무과 오규진 팀장 등 3명이, 모범직원은 교무처 교무과 송영경 주무관 등 18명이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4C 교육(Creativity의 창의교육, Critical thinking의 비판적 사고 교육, Communication의 의사소통 교육, Collaboration의 협업교육)과 지난 한 해 40여개가 넘는 개발된 융합전공 및 산학 연계전공 등 새로운 다중전공 교육체계가 보다 집적으로 관리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와 산학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연구 성과가 지역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하며, 더불어 도시재생, 교통문제,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 소외계층 문제 등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밭대학교는 새로운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사회를 이해하는 감성을 기술에 더하는 노력으로 남다른 대학의 위상을 정립하여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혁신대학'으로 진화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정환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도시공사 안전경영선포식 개최 대전도시공사는 2일 오전 안전 경영선포식을 개최하고 연초부터 강도 높은 안전경영 추진과 전임직원의 안전 의식 고취를 내외에 알렸다. 도시공사는 안전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안전 경영선포식을 2020년 시무식과 겸해 개최했다.



천안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참여직문화 만들기' 청렴 캠페인 천안시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근수)은 2일 오전 천안시청 봉사홀에서 열린 시무식에 참석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참여직문화만들기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25대 김원수 중부지방산업진흥장 취임 중부지방산업진흥장은 지난 2일 제25대 신임 청장으로 김원수(金元洙) 부이사관이 부임했다.



대덕구, 2020 사자성이 '여민동락' 현판식 대덕구(구청장 박정현)가 2020년 경자년 사자성이 현판식을 2일 구청 본관 1층 로비에서 가지고 주민이 행복한 새로운 대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올해의 사자성은 '백성과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한다'는 뜻의 여민동락(與民同樂)으로, 이는 지난 12월 전 직원의 공모를 통해 접수된 27개의 사자성이 중설문소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것이다.



건협 대전충남지부, 2020년 시무식 개최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설축회 본부장이 2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시무식을 갖고 있다. 설축회 본부장은 "직원들은 소통과 화합으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 고객에게 건강검진기관으로서 신뢰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대전충남지부가 되자"고 강조했다.



우리교회, 어려운 이웃에 백미와 후원금 기탁 대한예수교장로회 우리교회(목사 심성래)는 백미(20kg) 20포와 현금 130만원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온양2동에 기탁했다고 2일 밝혔다.

충남대학교 '우수강의 교수' 2명에 각각 1,000만원 상금 조두용 교수·구혜경 교수 '최고 강의' 뽑혔다

충남대학교가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교육모델 개발과 우수강의를 확산하기 위해 2명의 우수강의 교수를 선정했다. 충남대는 1월 2일 개최된 시무식에서 'CNU 우수 강의(CNU Teaching Award)' 교원 표창을 진행하고 사범대학 기술교육과 조두용,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구혜경 교수 등 2명에게 각각 1,000만원의 시상금을 전달했다. 충남대는 우수강의 교수를 선정, 시상한 것은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해에는 언론정보학과 김수정, 동물자원과학부 안희권 교수가 'CNU 우수 강의'에 선정됐다. 충남대는 전임 교수 중 2019학년도 2학기 강의 담당 전임교수를 대상으로 단과대학(학과) 학생



회 추천과 학생 인터뷰, 우수강의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 등을 통해 우수강의 교원 2명을 최종 선정했다. 조두용 교수는 '공업계약' 교과목을 진행하며 스마트 필관과 전자보드 프로그램을 활용해 동영상과 PPT 등 수업 기자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학생 친화적이

론 토론, 조별 활동 등 다양한 교수법을 통해 수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했으며, '거꾸로 학습법(Flipped learning)'을 활용해 토론 중심의 강의를 진행해 왔다. 이와 함께 자신의 강의를 절대화하지 않고 학생들의 관점에서 대등하고 평가하고 소통하며 학생들이 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사고의 틀을 넓힐 수 있도록 강의를 운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충남대는 2020년 시무식에서 조두용, 구혜경 교수에게 총장 표창과 함께 상금을 전달하고 우수 강의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K-MOOC 우선 지원, 우수강의 특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정복기자

인사

- 대전 서구
▲의회사무국장 이순화 ▲평생학습원장 주용석 ▲공공주택관리지원센터장 신상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이사오장규
- 선문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대학장 안금영 (외국어사용전공학과) 교수 ▲건 강보건의대학장 김준미(간호학과) 교수 ▲공과대학장 류선유(신소재 공학과) 교수 ▲기획처장 권진백 (컴퓨터공학부) 교수 ▲교무처장 박관준(법·경정학과) 교수 ▲홍보·대외협력처장 손진현(글로벌 경영학과) 교수 ▲국제교류처장 손진희(상담심리사회복지학과) 교수 ▲대학교육혁신원장 여성진(건축사학협동공학부) 교수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www.daejeontoday.com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시무식 대신 봉사활동

무료급식 봉사활동으로 새해 시작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회장 유창기는 지난 2일 천안적십자봉사관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으로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유창기 회장, 박상규 사무처장 및 임직원들과 천안 적십자봉사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충남지사 임직원들은 미역국, 불고기, 잡채 등을 만들고 배식하며 무료급식소를 찾은 70여 명의 노숙인과 독거노인들에게 점심을 제공

했다.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유창기 회장은 "올해도 봉사원님들과 함께 새해 업무를 시작할 수 있어 의미 있다."며 "2020년 한해도 소외된 이웃을 섬기며 지역의 어려운 곳에 희망을 전하는 충남지사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는 매년 시무식을 대신해 무료급식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새해 업무를 시작한다.

정성범기자



(주)금성백조주택, 2020년도 시무식

정성욱 회장 신년사, 원광섭 신입 부사장의 취임 인사 등

(주)금성백조주택(회장 정성욱)이 2일 오전 8시 30분, 본사대전 서구 탄방동, 금성백조 예미빌딩에서 임직원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2020 시무식을 진행하였다. 금성백조 임직원들은 본사에서 진행된 2020 시무식에서 2019년을 돌아보는 금성백조 활동영상 시청과 정성욱 회장 신년사, 임직원 간 신년인사 순으로 진행하였다. 정성욱 회장은 신년사에서 "1% 대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2020년은 과거 고성장 시대 영광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마인드와 차별화된 상품으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며 "주책 중심 포트폴리오를 넘어 공공·민간 공사 수주, 개발 사업 등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금성백조만의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으로 역량을 발휘해줄 것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날 시무식엔 원광섭 신입 부사장의 취임 인사도 함께했다. 원광섭 부사장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내실 있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금성백조의 일원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30년 전 첫 입사하던 신입사원의 그뻘처럼 설레는 마음이다"며, "일선이지만 그간 축적해온 건축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금성백조의 원대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취임 소감을 전했다.

김태선기자

대전대 LINC+사업단 장완재 직원 '교육부장관 표창'

'지역 창업체험센터' 사업 운영 대한 공적 인정받아

대전대학교(총장 이종서) LINC+사업단(단장 이영환)의 장완재 직원이 최근 '지역 창업체험센터' 사업 운영에 대한 공적 인정받아, 교육부장관 표창

을 수상했다. 장 씨는 지난 2년간 '지역 창업체험센터'의 실무 업무를 담당했으며, 대전지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창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역 창업체험센터'에서 운영하는 주요 프로그램은 'ICT융합 분야의 메이커 코딩교실'을 비롯

김정환기자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새해 첫날 순국선열 뜻 기리며 당무 시작



자유한국당 대전광역시당위원장 장이장우는 2일 오전, 새해를 맞아 순국선열들의 뜻을 기리고자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했다. 이장우 시장위원장을 비롯해

정용기, 이은권 국회의원과 대전지역 당협위원장, 총선 예비후보자 등 시장 당직자 100여명은 현충원에 안치된 호국영령들께 참배하며 2020년 당무를 시작했다.

이정복기자

맥키스컴퍼니 '2020 대전맨몸마라톤 대회' 성료!

2016년부터 5회째 개최, 매 대회마다 특별한 이벤트 진행



2020년 경자년(庚子年) 1월 1일 새해를 맞아 대전 엑스포시민광장입원에서 개최된 제5회 '2020 대전맨몸마라톤' 대회가 2500여 명의 참가자들의 힘찬 새해맞이와 함께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충청권 대표 주류기업 맥키스컴퍼니가 주최하는 '2020 대전맨몸마라톤' 대회는 2016년부터 매년 1월 1일 오전 11시 11분 11초에 출발해 맨몸으로 친환경 과학

도시 대전의 갑천길을 따라 한밭수목원, 유림공원, 카이스트, 과학공원 등 7km 구간을 달리는 이색 새해맞이 행사다. 이날 참가자들을 비롯해 2020년 첫걸음을 응원하고 특별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함께한 가족과 연인, 친구 등 전국에서 찾아온 5000여명의 인파가 운집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대전맨몸마라톤 대회는 볼거리와 이벤트가 많은 참여형 마라톤

송병배기자

한 '지능로봇 알티노'와 한방바이오 분야의 '전통 한약 만들기 체험' 등이다. 특히 초·중·고교생 대상의 창업체험 교육에서도 잘 주목했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장완재 직원은 "앞으로도 지역 내 창업 문화의 확산을 통해, 대전에 우수한 창업자가 많이 양성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장우 시장위원장은 참배 후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공정하고 부강한 대한민국, 자유한국당이 만들겠습니다.'라고 발명록을 작성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의 의지를 다졌다. 이후 수목공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대전광역시당 신년교례회에서 이장우 시장위원장은 "오는 4월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대전 전지역 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독재에 대항하고, 정권교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시장위원장인 제가 최일선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효인성교육총연합회 '2019 정기총회' 성료



효인성교육연합회 등 4개 효인성단체 회원 150여명 참석



이정식 대전효인성교육총연합회장

대전 효인성교육 총연합회 1차 정기총회가 지난 12월 27일 대전 유성구 대전 효인성교육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는 대전 효인성교육연합회, 사) 대한 창의인성교육원, 한국사회공헌본부, 인실련 대전지부 등 약 1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본 행사에 앞서 식전행사로 심옥분 단장의 색소폰과 아코디언 연주로 시작, 사)대한창의인성교육연구원 박상도 이사장의 내빈소개가 이어졌다.

박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대전 효인성교육 총연합회가 1차 정기총회를 개최한 데 대해 무척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효 교육과 인성 교육은 가정에서 부모, 학교에서 교사, 사회에서 지도층 인사 등 리더의 역할과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효를 바탕으로 하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와 국가가 건강할 수 있다는 논리로 보면 효와 복지의 융합, 효와 인성의 융합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효인성지도사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식 대전효인성교육총연합회장은 축사에서 "우선 대전 효인성교육 총연합회 1차 정기총회를 연데 대해 하나님께는 영광을 여러분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수년전 부터 한국을 아는 세계인들은 안보,경제,사회,윤리, 범죄 등을 우려하는 눈으로 보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국의 위정자들은 천하 태평, 안일무사는 물론 당리당락과 안보불감증에 빠져 있었다"면서 "그러는동안 북한은 핵개발을 거듭하며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며, 한국을 향해서는 불바다를 운운하며 전쟁의 강도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경제는 파탄에 이르고, 사회윤리,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범죄는 날로 흉폭해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엄중한 시기에 대전 효·인성교육연합회, 사) 대한 창의인성교육원, 한국사회공헌본부, 인실련 대전지부 등 4개 효·인성관련단체를 하나로 묶어 지난 6월 7일 대전 효인성교육총연합회를 결성하게 됐다"면서 "여러분들의 성원 속에 부족한 제가 총연합회장을 맡아 나름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갈길이 멀고 할일은 참 많다"고 회고했다.

또한 "성직자의 인품으로 바라볼때 이 세상은 말세중의 말세로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도 지나치게 그도를 넘고 있다"면서 "정치,경제,군사,과학,학문,학벌 지식이 이 사회와 인류를 올바르게 만들어 가는 데는 어렵다. 효와 인성 회복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인성은 구호나 활자로 되는 것이 아니라 千思不如一行·천번 생각하는 것 보다 한번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말이 있듯이 오직 실천으로 옮겨야 실행할때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효인성인입니다. 효인성 운동의 기수로서 한국을 효·인성을 통해서 행복한 나라, 세계인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일등국가로 만들 뿐만 아니라 세계에 평화와 행복을 안겨주는 효인성 수출국가가 될 것을 확신한다"면서 "대망의 2020년 새해에는 우리 효인성교육총연합회가 더욱 더 성장 발전하고,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효인성교육총연합회는 산업사회에 따른 우리의 전통윤리가 사라지고 각박한 사회에 '효와 인성'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대전지역 효와 인성 관련 단체를 일부 통합해 만든 순수한 사회단체이다.



이정식 회장은 대전·충남지역에서 우리의 전통사상인 '효'와 '인성' 전도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회장은 충남 홍성에서 태어나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군을 제대한 후 국가행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그 후 국방부 행정공무원으로 몸담아 22년간 근무하면서 국방 행정의 능률을 높이는 데 큰 공헌을 해 국방부장관 표창과 내무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9년 결산보고와 기타 토의 등을 거쳐 오전으로 행사를 마쳤다.